Symphony No. 4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
작곡가: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작곡 시기: 1988–1992년
완성: 1992년 8월 22일
위촉: Los Angeles Philharmonic, Betty Freeman 후원
초연: 1993년 2월 5일, Los Angeles Music Center의 Dorothy Chandler Pavilion에서 Los Angeles Philharmonic이 작곡가의 지휘로 연주했다.
출판: Chester Music, 일부 지역의 권리는 Polskie Wydawnictwo Muzyczne(PWM)
구성: 끊김 없이 이어지는 두 악장

IMSLP: Witold Lutosławski 작품 목록

Wikipedia: Symphony No. 4 (Lutosławski)

루토스와프스키의 네 교향곡 가운데 마지막인 제 4번은 느린 첫째 악장과 비교적 빠른 둘째 악장으로 이어진다. 작곡가는 앞부분을 준비부, 뒷부분을 본론으로 설명했다. 두 악장은 쉬지 않고 이어지지만 음악의 성격은
뚜렷이 바뀐다. 도입부의 낮은 E음과 클라리넷 선율은 빠른 관현악 삽화와 대비를 이루고, 둘째 악장에서는
노래하는 주제가 중심에 놓인다.

도입부가 들려주는 것

약음기를 사용한 현악기군이 낮은 E음을 반복하고 하프가 음색을 보태는 가운데, 클라리넷이 긴 선율을
연주하며 곡이 시작한다. Witold Lutosławski Society의 작품 해설은 반복 저음과 단 3도 화음, 클라리넷의 노래하는 선율, 하프의 음색이 도입부에서 맞물린다고 설명한다. 협회는 이 선율에 작품 전체를 특징짓는
노래의 성격이 담겼다고 본다. 이후 플루트가 선율에 합류하고 현악이 이를 넓혀 간다.

클라리넷 선율을 다른 악기가 이어받는 사이 빠른 삽화가 끼어들어 진행을 끊는다. 이 대비는 다음 악장을 준비하면서 작품의 서정성과 불안정한 음향을 함께 드러낸다.

출판 정보와 자료

원작은 Chester Music이 출판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Polskie Wydawnictwo Muzyczne(PWM)가 권리를 보유한다. 출판사 카탈로그에는 Christopher Austin이 2018년 Rambert Dance Company 공연을 위해 만든 축소 편성판도 실려 있다. 1972년 A maiori 스케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의 앞선 작업에서 나온 별도 구상이며, 제 4번의 초고였다는 근거는 없다.

소요 시간

Los Angeles Philharmonic과 Wise Music Classical은 전곡을 약 22분으로 안내한다. Hannu Lintu가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음반에서 이 곡은 약 21분이며, Esa-Pekka Salonen과 Los Angeles Philharmonic의 1993년 녹음은 21분이다. 음반의 트랙 길이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실제 연주 시간은 지휘자의 템포에 따라 달라진다.

편성

목관은 플루트 3(제 3주자는 피콜로 겸주), 오보에 3(제 3주자는 잉글리시 호른 겸주), 클라리넷 3(제 2주자는 E-flat 클라리넷, 제 3주자는 베이스 클라리넷 겸주), 바순 3(제 3주자는 콘트라바순 겸주)이다. 금관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1로 구성된다.

타악기에는 팀파니와 큰북, 봉고, 튜블러 벨, 글로켄슈필 , 마림바, 작은북, 서스펜디드 심벌즈, 탐탐, 테너드럼, 톰톰, 비브라폰, 실로폰이 포함된다. 하프 두 대와 피아노, 첼레스타, 현악기도 필요하다.

두 악장과 하나의 연속된 음악

작곡가는 1993년 로스앤젤레스 초연을 앞둔 Los Angeles Times 인터뷰에서 첫 악장은 짧은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니라 느린 도입이며 둘째 악장이 작품의 본론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영국 초연 전 The Independent 인터뷰에서 그는 첫 부분이 구획되지 않은 채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미완결 상태로 둘째 악장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첫 악장은 본론을 기다리게 하는 준비부이지만 선율과 삽화가 충분한 시간을 차지해 그 자체로도 무게가 있다.

그렇더라도 작곡가가 제시한 악장 구분이 청취자의 경험을 전부 규정하지는 않는다. 음악학자 Adrian Thomas는 도입부에서 주요 선율을 먼저 제시하고 둘째 악장에서 발전시키는 , 앞부분에 무게를 둔 구조로 이 곡을 읽는다. 이 관점에서는 두 악장의 경계보다 진술과 변주, 간주가 하나의 연속된 곡선을 만드는 방식이 더 중요해진다 . Thomas는 절정 뒤의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도 극적으로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코다도
다소 관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비평은 작품이 힘을 잃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마지막 절정에만 기대지 말고 도입부가 세운 중심에도 주목하자는 제안이다.

느린 첫 악장: 노래와 중단

클라리넷이 시작한 선율은 뒤이어 플루트가 받고, 현악은 악구를 더 넓은 호흡으로 이어 간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의 작품 해설을 쓴 Steven Stucky는 이 선율이 부드러운 화음 배경과 짝을 이루며, 더 빠르고 예측하기 힘든 삽화가 그 사이에 끼어든다고 설명한다. 선율은 다른 악기로 이어지는 반면, 빠른 삽화는 그 흐름을 끊거나 뒤로 미룬다. 이 부분의 긴장은 큰 소리를 연달아 쌓는 데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행 방식이 교차하는 데서 생긴다.

마지막에 현악이 선율을 확장할 때 작품은 강한 정점에 가까워지는 듯하지만, 그 힘은 완결된 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끊긴다. 작곡가가 인터뷰에서 말한 ‘완결되지 않은 도입 ’은 이 청취 경험과 연결된다. 첫 악장은

독립된 느린 악장처럼 느낄 만큼 선율적이지만 , 끝에서 다음 부분의 필요성을 남긴다.

둘째 악장: 추진력, 노래, 그리고 여파

둘째 악장은 빠른 16분음표 음형으로 속도를 높인 뒤, 무겁고 노래하듯 흐르는 grave cantabile 주제를 드러낸다. 이후 높은 음역에서 시작한 반짝이는 음향이 아래쪽 악기군으로 번진다. 독주 트럼펫과 세 대의 트롬본이 뒤따를 전개를 알리고, 앞서 들은 cantabile 선율이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 되돌아온 선율과 현악 · 금관의 강한 유니즌이 겹치는 곳에서 작품은 정점에 이른다.

하지만 그 절정이 곧 끝은 아니다. 뒤이어 음악이 회상하듯 잦아들어 비올라의 한 음까지 가라앉고, 짧고 밝은 코다가 곡을 닫는다. Stucky는 이 결말을 절정 이후의 여파와 코다로 설명한다. Thomas는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도 극적 구성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코다는 다소 관습적이라고 평가한다. 두 사람은 음악의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결말에 부여하는 의미와 비중을 달리 본다.

기보된 음악과 연주자의 여지

제어된 우연성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작품 전체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리는 아니다. 선율과 명확하게 기보된 진행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협회 해설은 서정적이고 조성감을 떠올리게 하는 화성이 두드러져도 그 결과가 전통적인 조성 음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노래하는 선율과 현대적인 음향 조직이 함께 놓인다.

Dalia Stasevska는 공연을 앞둔 인터뷰에서 마지막의 유머와 ‘파티 ’ 같은 분위기를 언급하고, 우연성 구간은 공연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휘자의 공연 전 해석이며, 실제 연주 결과에 대한 평은 아니다.

지휘자와 비평가가 들은 제 4번

Los Angeles Philharmonic이 위촉한 이 교향곡은 1993년 2월 5일 작곡가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그는 인터뷰에서 직접 지휘해야 자신의 작품을 소리로 확인하고 더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해 9월 Warsaw Autumn에서도 제 4번을 지휘했다. Culture.pl은 그 공연을 작곡가의 마지막 폴란드 출연으로 기록하며, 실황 음반에는 The Last Concert라는 제목이 붙었다.

Los Angeles Times의 비평가 Daniel Cariaga는 2003년 공연에서 이 곡의 파편적이고 거친 면을
지적하면서도 , Salonen이 악상 사이의 흐름을 살려 설득력 있게 이끌었다고 평했다.

Salonen은 2019년 출판사 인터뷰에서 작품에 후기 브람스의 기운과 가을의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 표현은 교향곡의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지휘자 개인의 청취를 보여 준다.

Lintu와 Finnish Radio Symphony Orchestra의 2017–2018년 녹음을 들은 Richard Hanlon은 도입부의 지친 듯한 걸음과 그 뒤에 나오는 클라리넷, 후반의 세 독주 바이올린, 짧고 단호한 종결을 특히 인상적으로 꼽았다. 그는 Lintu가 도입부부터 종결까지 음악의 세부를 선명하게 연결한다고 평가했다. 앞선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여러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는다는 해석도 덧붙였는데 , 이는 리뷰어 개인의 청취로 한정된다. Cariaga와 Hanlon은 서로 다른 연주에서 파편적인 악상을 어떻게 이어 가는지에 주목했다.

□□ □□

- Los Angeles Philharmonic, *Symphony No. 4*
- Wise Music Classical, *Symphony No. 4 [4.Symfonia]*
- Witold Lutosławski Society, *Symphony No. 4*
- Culture.pl, *Symphony No. 4 – Witold Lutosławski*
- Fryderyk Chopin Institute, Los Angeles □□
- Wise Music Classical, 2018□ □□ □□□
- Los Angeles Times, “Still Discovering”
- The Independent, “Tuning in to tradition”
- Adrian Thomas, “One Last Meeting: Lutosławski, Szymanowski and the Fantasia”
- Los Angeles Times, “Philharmonic reclaims Lutoslawski’s Fourth”
- Wise Music Classical, “Salonen Selects Lutosławski”
- Los Angeles Philharmonic, Lutosławski □□□ □□ □□
- MusicWeb International, Salonen·LA Phil 1993□ □□ □□
- MusicWeb International, Hannu Lintu □□ □□
- Broad Street Review, Dalia Stasevska □□ □ □□□